

PEOPLE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광주소방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

광주소방안전본부는 20일 소방공무원들의 보육 지원을 위해 마련한 '광주소방안전본부 공동직장 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 안평환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최성현 근로복지공단 보육지원센터장, 박신애 광주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송병관 광주시 직장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북부소방서 부지 내 마련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부지면적 860㎡, 연면적 599.92㎡의 3층 규모로 4개의 보육실, 유희실, 북카페, 햇살마당 등 최신 보육시설과 놀이공간을 갖추고 있다.

지난 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 최대 40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담양 한우명가, 취약계층에 온정

담양군은 최근 한우명가가 백동주공2단지 취약계층 50세대에 전달할 한우 사골육수 50인분(50만 원 상당)을 담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우명가와 담양읍 지사협은 한우 사골육수를 대상자들에게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김일근 한우명가 대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한 한우명가가 다시 지역에 보답할 수 있어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런 따뜻한 손길이 모여 지역 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며 "한우명가의 지속적인 나눔 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 아울렛 남악점-목포소방 안전문화 공동체 형성 협약

롯데 아울렛 남악점은 최근 목포소방과 지역사회 안전문화 공동체 형성 및 화재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대홍 롯데 아울렛 남악점장과 김용호 목포소방서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지원해 지역사회 화재예방 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 등 시민 생명 및 재산보호에 힘쓴다. 또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헌활동과 취약계층 주택 화재예방 활성화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적극 협력한다.

롯데 아울렛 남악점과 목포소방은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개선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목포시 산정동의 독거노인 거주 세대를 방문해 주거 환경개선 및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세탁기와 온수기도 설치한다.

보성, 고흥에 고향사랑기부...“신뢰 강화·발전 협력”

군, 고흥농업기술센터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행사 3년째 지속...농업·경제 협력 강화 등 상생 발전 도모

보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고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보성군과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66명이 참여했으며, 각각 33명씩 기부에 동참했다.

보성군과 고흥군은 2012년부터 우호 교류를 이어오며, 2022년에는 23명씩 총 46명, 지난해에는 32명씩 총 64명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상호 기부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지역은 농업과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특화작목 연구 △기후변화 대응 전략 △병해충 발생 정보 △농산물 생산 동향 △신기술 보급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번 기부를 계기로 두 지역은 농업뿐만 아니라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상호 기부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두 지역 간 신뢰를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뿐만 아니라 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보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고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담례품으로 받거나, 또는 가까운 농협을 통해 가능하다. 보성=임태형 기자 lth66@gwangnam.co.kr



장흥군은 제80회 식목행사를 맞아 관산을 삼산리 '장흥 126타워' 앞에서 '통일 무궁화 동산 식목행사'를 개최했다.

장흥군, 통일 염원 담은 무궁화 2600주 식재

장흥군은 최근 제80회 식목행사를 맞아 관산을 삼산리 '장흥 126타워' 앞에서 '통일 무궁화 동산 식목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성군수를 비롯해 운영회 도의원, 김병량 장흥군산림조합 조합장 등 사회단체 임직원, 군민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일의 염원을 담은 무궁화 2600주를 함께 심었다.

또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살구나무, 단감나무 모목 총 1000그루를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했다.

군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김성군수는 "제80회 식목행사가 안중근의사 순국 115주기를 맞아 통일 시작의 땅 장흥, 그 중에서도 '장흥 126타워'에서 개최된 것이 매우 뜻깊다"며 "이번에 심은 무궁화에 담긴 통일의 염원이 미래 세대에 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병수)은 20일 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단 이사장과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이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광주환경공단이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와 여러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진행되는 전국적 릴레이 행사로, 각 기관과 기업이 동참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공단 역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협력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동구, 동원사 생화차 나눔 광주 동구 지산동 동원사(지주 지산스님)는 지난 18일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동구청 공무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생화차 100여 잔을 전달했다.

SNNC, 한마음장학회 지원사업 2000여만원 전달

포스코 투자사인 SNNC(사장 이진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활동으로 한마음장학회 지원사업 등에 총 1950만원을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사업비는 한마음장학회 880만원, 학대피해아동·그룹홈문화체험비 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예체능프로그램 450만원, 기타 20만원 등이다.

SNNC 기획지원실장은 "우리의 미래는 현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으며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며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사랑나눔복지재단이사는 "매년 아이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 지원을 해주시는 SNNC 임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복지재단도 SNNC와 함께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김진용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장은 "우리나라 여성의 약 70%에 해당하는 유방 내 실질조직이 지방조직보다 많은 치밀유방인 경우 암 검진이 유방 촬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자동유방초음파 검사와 함께 시행하면 1cm 크기의 종양까지도 확인이 가능해 유방암 진단의 정확도와 발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조선대병원, 광주·전남 첫 '3차원 자동유방초음파' 도입

유방암 진단 정확성 향상 기대

조선대학교병원은 광주·전남 최초로 도입한 '3차원 자동유방초음파(invenia ABUS 2.0)'를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자동유방초음파는 불륨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유방 전문 초음파진단기 중 유일하게 검진 항목에 대한 FDA 승인을 받은 초음파 장비다. 국내 신의료기술도 획득해 안전성과 유효성도 입증됐다.

이 장비는 전통적으로 움직이면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다. 여성 유방 형태에 맞게 곡선으로 고안된 탐촉자가 자동으로 전체 유방을 촬영하면 AI가 3차원의 입체 유방 초음파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정상 부위를 자동 검출해 종양의 위치와 크기 등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판독을 돕는다.

특히 자동화 특성상 표준화되고 일관된 고해상도 영상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한 번에 15cm가량 영역을 스캔할 수 있어 넓은 영역의 데이터 획득이 가능해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고 의료진이 보다 확신을 갖고 진단하는데 데 도움이 된다.

김진용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장은 "우리나라 여성의 약 70%에 해당하는 유방 내 실질조직이 지방조직보다 많은 치밀유방인 경우 암 검진이 유방 촬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자동유방초음파 검사와 함께 시행하면 1cm 크기의 종양까지도 확인이 가능해 유방암 진단의 정확도와 발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구, 반부패 청렴교육 김혜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20일 광주 서구청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공직사의 부조리 관행 개선을 위한 사례중심의 '상반기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